

2022학년도 2학기 제2차 지필평가

2022년 12월 13일 1교시  
(국어)과목 과목코드( 01 ) 제2학년

※ 확인사항

- 먼저 시험지 전체 페이지 수를 확인하십시오.
- OMR 카드에 성명과 번호, 과목코드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배점안내

배 점	문 항 수	점 수
선택형	4	16
	5	60
	6	24
계	20	100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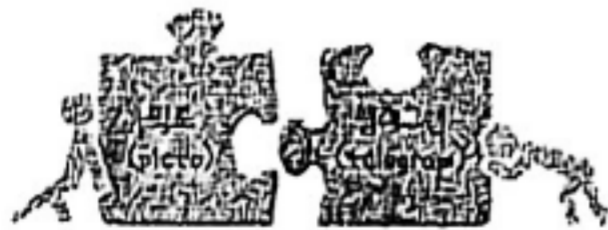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중학교 2학년 김도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장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림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 화장실 픽토그램

네,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 장소에서 화장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을 나타내는 그림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이것, 바로 픽토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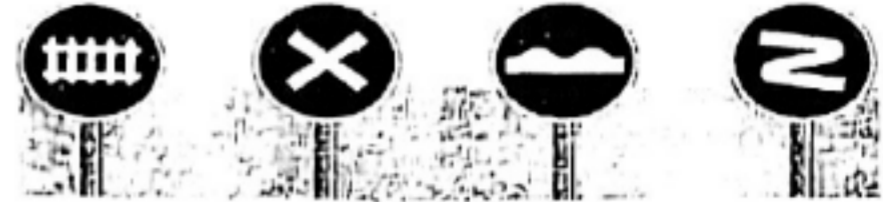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이 합쳐 만든 말입니다.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이지요.



▲ 픽토그램의 어원

이러한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나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시작은 19세기 산업혁명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과 운송 수단이 크게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를 잇는 도로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지요. 결국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문자 형태의 네 가지 교통 표지판이 국제 협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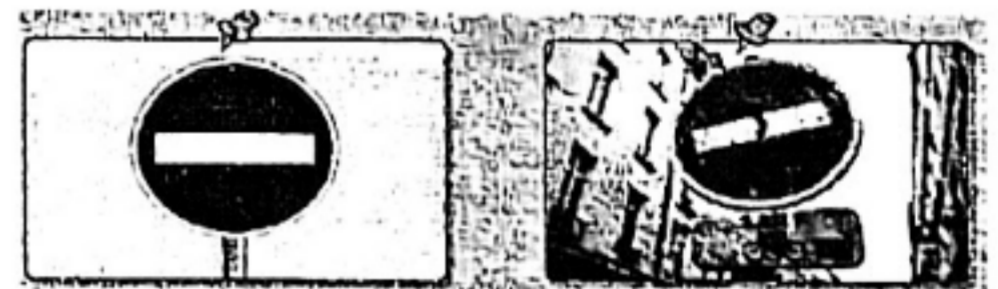
▲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협약으로 채택된 최초의 교통 표지판 픽토그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픽토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하려면 픽토그램만큼 효과적인 게 없지요? 예뻐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을 보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올림픽 픽토그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경기 종목별 픽토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이후로 2000년 이전까지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픽토그램이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은 호주 원주민의 부메랑을 주제로 하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의 갑골문자의 형태를 본떠 픽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역동적인 모습의 픽토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조금 색다른 픽토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진입금지 픽토그램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이 픽토그램은 프랑스의 어떤 거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진입하지 말라는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다르지요? 사람 모양 하나 추가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픽토그램을 보고 재미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은 정보뿐 아니라 감성까지 담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픽토그램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픽토그램, 이제는 낯설거나 어렵지 않지요? 픽토그램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정보를 담은 그림입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틀 뛰어넘어 의미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통하게 될 미래 사회에는 픽토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픽토그램은 사물, 시설, 행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설명 문자이다.
- ② 픽토그램은 국적, 언어, 시대,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되므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③ 최초의 픽토그램은 19세기 이전부터 사용하여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전하다가 1909년에 국제 협약으로 인정받았다.
- ④ 2000년 이후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 ⑤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을 보면 정보 전달의 역할은 사라지고 재미와 생동감 등 감성 전달이 주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윗글에서 발표자가 활용한 발표 전략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갑: 처음 부분에서는 주제 선정의 이유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니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던 것 같다.
- ② 을: 맞아. 게다가 초반에 화장실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서 '저 그림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더 호기심이 생겼어.
- ③ 병: 그렇지. 게다가 픽토그램이 우리의 생활 속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면서 발표 내용과 연결 지어 주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좋았어.
- ④ 정: 실제 발표의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픽토그램의 어원이나 최초의 교통 표지판을 시각 자료로 보여주어서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었어.
- ⑤ 무: 올림픽 픽토그램도 그래. 연도별 올림픽 픽토그램을 모두 보여주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픽토그램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니까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쉬웠지.

3. <보기> 중 윗글에 나타난 설명 방식이 드러난 것만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5점]

< 보 기 >

- ㄱ. 마술이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장치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 ㄴ.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들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제사상에 설음식을 두루 갖추어 놓고 차례를 지낸다.
- ㄷ. 파전을 만들기 위해 우선 파를 5cm로 자른 후, 밀가루 반죽에 섞어 기름을 두르고 튀기듯이 굽는다.
- ㄹ. 사과를 동그랗고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 길쭉한 사과를 만져보면 매끈하고 그것을 자르면 뽕얀 속살이 드러난다. 실제 사과를 입에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싹 퍼진다.
- ㅁ.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인정하고 따라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ㅁ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들 깨는 산올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매마른 꼴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먹을  
 ㉡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낡지 못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나)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비슷하게 제시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보 기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① (나)와 <보기>는 시의 전체적인 문장구조와 배열이 비슷하다.
- ② (나)는 '나→그'로, <보기>는 '나→그→우리'로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 ③ (나)의 '단추'를 누르는 행위와 <보기>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모두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다.
- ④ 의미 부여 행위를 통해 (나)는 '라디오→전파'로, <보기>는 '몸짓→꽃'으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 ⑤ (나)는 '라디오'와 같은 사랑은 일회적이고 편의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하는 것이라면, <보기>는 의미 있는 만남 추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6.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 성북동은 변화의 중심 공간으로, 이곳에 생긴 번지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곳을 상징한다.
- ② ㉡: 번지를 잃어버린 비둘기는 산업화·도시화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原住民)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 ③ ㉢: 채석장 포성은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④ ㉣: 빈헤버린 성북동의 모습 속에서도 산업화·도시화 이전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온기를 느껴보고자 노력하는 비둘기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 삶의 터전과 인간뿐만 아니라 산업화·도시화 이전에 지니고 있던 가치들까지 파괴되어 버린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평화롭게 지내던 형과 아우는 측량기사와 조수들이 설치해놓은 맷줄과 밧줄로 줄넘기 놀이를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된다.

형 가만있자, 저건 놀라운 사실인데! (아우를 향하여 소리 지른다.) 야, 저기 있는 우리 집을 봐!

아우 우리 집? / 형 그레! / 아우 우리 집이 어때서요?

형 난 지금까지 우리 집이 들판 한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냐! 측량 기사가 쳐 놓은 밧줄을 보라고. 우리 집은 한 가운데가 아냐,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

아우 그렇군요. 우리 집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형 ㉡오른쪽은 내 쪽이야.

아우 형님 쪽에 있다고 우리 집을 형님이 독차지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형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아우 형님, 저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집이라고요!

형 네가 있는 그쪽도 우리가 다 함께 살던 땅이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단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게 했잖아?

아우 그건 오해예요, 형님. 얼마든지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형 지금은 넘어오라고? / 아우 네, 형님.

형 내가 밧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아우를 외면한 채 그림을 그리며) 난 집이나 마저 그려야겠다.

아우 좋아요, 형님은 집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나는 젓소들을 가지겠어요

형 젓소들을 가지겠다고?

아우 저기 들판을 보세요. 젓소들은 지금 왼쪽에, 그러니까 내 쪽에 있어요

형 어떻게 모두 네 쪽에 있지?

아우 내 쪽의 풀이 탐스러워 젓소들이 몰려왔겠죠. 난 젓소들을 길러서 재산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 집보다도 더 큰 집을 짓겠어요!

형 집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네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가축들은 자유롭게 놔둬! 네 땅의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시 내 땅으로 넘어올거다!

측량 기사와 조수들 등장한다.

측량 기사 어떻게습니까, 우리 실력이?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눠 놓은 측량 솜씨에 놀라셨을 겁니다. (조수들을 칭찬한다.) 자네들 참, 잘했어. 아주 능숙한 솜씨야.

(나)

측량 기사 자 어떤가요? 이쪽도 저쪽만큼이나 좋은 땅이지요?  
사람 1 양쪽 다 땅은 좋은데, 저 가로막은 벽이 눈에 거슬리요.  
사람 2 그래요. 저 벽 때문에 누가 집을 짓겠어요?  
사람 3 헛결음만 했어요. 돌아들 갑시다.

측량 기사 ㉠여러분은 저 벽이 얼마나 훌륭한 관광 명소인지 모르  
시는군요!

사람들 관광 명소라니요?

측량 기사 여러분이 이곳에 호텔을 세우면 큰 돈을 벌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들뜬에서 벽을 쌓아 놓고 싸우는 어리  
석은 형제의 싸움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테  
니까요.

사람들 설마, 그럴 리가…….

측량 기사 아뇨. 틀림없이 몰려옵니다.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  
면서 저 벽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양할 때 사 두세요. 저 벽이 유명해진 다음엔 땅  
값이 몇 배나 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듣고 보니 그렇군요! 분양 신청은 어디서 해야지요?

측량 기사 우리 측량 사무소에서 가시 하세요. 선착순 접수니까  
일찍 가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분양 측량은 우리  
에게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정확하게  
나눠 놓을테니……. 그럼 어서 서둘러요! 늦게 신청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측량 기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로 앞을 다투며 달리 간다.

측량기사는 아우에게 다가간다. (중략)

측량 기사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저쪽의 심보 나쁜 형이 당신 땅으로  
넘어 올테니까요.

아우 형님이?

측량 기사 당신을 쫓아 내고 젖소들을 차지할 욕심이죠.

측량 기사, 호루라기를 꺼내 분다. 조수들이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가방에서 분해 상태의 장총을 꺼내 조립한다.

측량 기사 이게 뭔지 알아요?

아우 총인데요?

측량 기사 아주 성능이 좋은 총이지요. 당신은 이 총으로 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우 벽을 지켜요?

측량 기사 (아우의 손에 총을 쥐여 주며) 지금은 외상으로 드릴 테니,  
대금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조수들 (가방에서 총알을 꺼내 놓으며) 여기 총알이 있어요.

측량 기사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쏘세요!

(다)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

형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아우 비가 그치고, 산들바람이 부는군.

형 저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가만있어 봐. 민들레  
꽃은 씨를 뱉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잖아?

아우 햇빛이 비치니까 샛노란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형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로 던져 주어야지. 동생이 이 민들레꽃을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거야.

아우 형님에게 이 꽃을 드리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인 나를 생각하겠지.

형과 아우, 민들레꽃을 여러 송이 꺾는다. 그들은 벽으로 다가가서  
민들레꽃을 서로 던져 준다.

아우 형님 내 말 들려요? / 형 들린다, 들려! 너도 내 말 들리냐?

아우 들려요! / 형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아우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빨리 허물어요!

이강백, 「들뜬에서」

7. 윗글과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② 극의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 ③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5단 구성을 보여준다.
- ④ 연극 무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래에 등장하는 인물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 ⑤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 측량기사와 조수들이 쳐 놓은 말뚝과 밧줄은 형제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 ② ㉡: 영역을 구분하는 모습을 통해 형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 ③ ㉢: 형제 간 갈등의 상황을 '훌륭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나타내며 갈등의 장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비 오는 날씨가 점점 밝아지는 변화를 통해 형제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 '우리'라고 하는 변화된 명칭을 활용하여 형제 간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9. 다음은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갑: (가)에서 아우가 먼저 손 내밀어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형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인물인 것 같아.
- ② 을: (가)에서 형이 집을 가지려고 하자 본인은 젖소를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우는 합리적인 생각의 소유자 같아.
- ③ 병: (나)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투기 심리 등을 자극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측량기사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같아.
- ④ 정: (나)에서 땅값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⑤ 무: (나)에서 아우에게 총을 쥐어주고 아낌없이 쏘라고 말 하는 모습을 보면 측량기사와 조수들은 잔혹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같아.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이 글은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단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려 낸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 ① 형과 아우는 남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말뚝과 밧줄은 광복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 경계선이었던 38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아름다운 들판은 분단 되기 이전에 평화롭던 우리나라의 영토, 터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남북 간 분단을 유발했던 우리나라 안의 경제 부흥 세력들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민들레꽃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염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①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가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뺏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엮리었다. 점순네 수탉(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 같은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쓰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뿔 쪼았다. 이렇게 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 붉이 번쩍 난다. ②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리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는다.

나폴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폴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뛰는데 생이 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밧소리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에!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격 만척 하고 이렇게 짐짝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중략)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저의 짐게를 힐끔힐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켜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푹 끼치는 ③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부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일론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근세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을 놓았다. 우리가 이 동네를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④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 무치런 새빨개진 적은 없었다. (중략)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매 양식이 달라지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힘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 껌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할 실컷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중략)

⑤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을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매?”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북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⑥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열짐에 영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텨 안 그벌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될 안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벌 테야.”

“닭 죽은 건 얹려 마라, 내 안 이물테니.”

그리고 뺏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짙은 채 그대로 꺾 쓰러진다. ⑦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1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서술자가 다른 대상의 삶을 관찰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비속어를 사용하여 언어에 의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배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나가고 있다.
- ⑤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여 사건의 전말에 대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12. 밑글에 나타난 ㉠와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 ① ㉠는 점순이가 나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소재이고, ㉡는 점순이가 나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점순이가 나에 대한 미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소재이고, ㉡는 점순이가 나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 ③ ㉠는 내가 점순이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고, ㉡는 내가 점순이의 본심을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와 ㉡는 모두 점순이가 본인의 사랑과 관심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무안함과 창피함을 표출하는 소재이다.
- ⑤ ㉠와 ㉡는 모두 점순이와 나와 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소재이자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체로써 활용되는 소재이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에서 '나'가 수탉을 직접 때리지 못하고 헛매질만 하는 것은 점순이와의 신분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에서 점순이 얼굴이 새빨개진 이유는 '나'에게 본인의 마음을 거절당한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껴서이다.
- ③ ㉢에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이는 '나'의 행동을 통해 본인을 괴롭히는 점순이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보여준다.
- ④ ㉣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행동 때문에 본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 ⑤ ㉤에서 '나'와 점순이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는 모습은 둘 사이에 나타나는 화해의 분위기가 사랑의 기운을 상징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봅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 역시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나) 세금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한다. 즉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한다.

(다) 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러 공공시설을 짓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도 정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무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도 지원한다. 건강보험같은 사회 보장 제도도 정부가 운영한다. 이러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다.

(라)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세금은 누가 기둥이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 정부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걷는 세금이다.

또한,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그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달리 간접세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을 샀다고 해 보자. 산 물건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에는 부가 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매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세금을 낼까? 바로 여러분에게 그 물건을 판 기업이나 가게 주인이다. 간접세는 이처럼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식일까?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단점도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이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적은 간에 부담하는 세금은 똑같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적게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둘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간접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은 셈이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는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보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걷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매길 수 있는데, 그 일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비자들 물건을 살 때마다 자동으로 내게 되니 정부로서는 편하다. 그런데 세금을 잘 걷힌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직접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 가운데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4. 윗글을 쓴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세금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다.
- ② 세금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다.
- ③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 ④ 세금의 쓰임새와 관련 명언들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다.
- 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받는 처벌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15. (가)~(마)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가)에서는 취임식 연설에서 케네디가 했던 말을 끌고 왔으므로 '인용'이 사용되었다.
- ② (나)에서는 세금의 뜻과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가 사용되었다.
- ③ (다)에서는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와 '열거'가 사용되었다.
- ④ (라)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세금의 종류에 대해 나누어 설명하며 각 세금의 종류의 뜻과 예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분류', '정의', '예시'가 사용되었다.
- ⑤ (마)에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다른 곳에 빗대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조', '예시', '비유'가 사용되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보기 >

	A	B
재산(2022년)	1000만원	5000만원

OO국의 재산세 비율	
100만 이상~500만 원 미만	10%
500만 이상~2000만 원 미만	25%
2000만 이상~4500만 원 미만	35%
4500만 원 이상	50%

부가 가치세 비율	공급가의 10%
물건의 가격	공급가+ 부가 가치세

A와 B는 OO국의 국민이다. A와 B는 매년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비율에 따라 국세청에 세금을 낸다. A와 B는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커피에 들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33000원의 비용을 내고 텀블러를 한 개씩 샀다.

- ① OO국이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 ② OO국의 재산세는 중앙 정부 기관에 내는 국세이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에 해당한다.
- ③ OO국의 재산세는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걷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④ A와 B는 OO국의 재산세 비율에 따라 세금으로 각각 250만 원, 2500만 원을 내며, 부가 가치세로는 동일하게 3300원 씩을 낼 것이다.
- ⑤ A와 B가 △△커피에서 텀블러를 구매하고 내는 세금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A와 B이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텀블러를 판 사람이다.

17. <보기>는 훈민정음 중 자음의 제자원리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보기 >

	㉠	㉡	㉢이세
아(牙)음		ㅋ	
설(舌)음		㉣	
순(唇)음		ㅂ, ㅍ	
치(齒)음		㉤	
후(喉)음			

- ① 위의 제자원리 표에 들어갈 총 자음의 개수는 17개이다.
- ② ㉠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가 들어가며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은 'ㄱ, ㄴ, ㄷ, ㄹ, ㅎ'이다.
- ③ ㉡은 ㉠에서 만들어진 자음들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의 원리가 들어가며 이 원리에 따라 9개의 자음이 만들어진다.
- ④ ㉢은 ㉠, ㉡과 달리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ㄹ, ㅅ, ㅇ(옛이음)'이 들어간다.
- ⑤ ㉤에 들어가는 자음은 'ㄷ, ㅌ', ㉥에 들어가는 자음은 'ㅈ, ㅊ'으로 ㉠에서 만들어진 글자보다 발음의 소리가 세다.

18. <보기>는 각기 다른 브랜드의 핸드폰 자판이다. 이를 통해 훈민정음 중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보기 >

㉠	1   2   3   4	㉡	1   2   3   4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ㅂ   ㅅ   ㅈ   ㅊ
	ㅇ   ㅁ   ㅎ   ㅏ		ㅇ   ㅁ   ㅎ   ㅏ

- ① ㉠의 1, 2, 3번 자판의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든 모음의 기본자이다.
- ② ㉡의 1, 2, 3번 자판의 글자는 각각 사람, 하늘, 땅을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 ③ ㉠의 1과 2, 1과 3번 자판의 글자를 서로 합하여 처음 나온 글자가 ㉡의 3, 6번의 모음이며 이를 초출자라고 한다.
- ④ ㉡의 3, 6번 자판의 글자와 ㉠의 2번 자판의 글자를 다시 한번 합하여 나온 글자가 제출자이며, 여기에는 'ㅑ, ㅓ, ㅕ, ㅗ'가 있다.
- ⑤ 모음의 초출자와 제출자는 기본자들을 서로 합하여 만든 글자들로 이에 적용되는 원리를 합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